

■ 이 슈 진 단

북한 경제특구 · 인프라 개발 - 건설 물량 60조원 규모 추정

박 용 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spark@cerik.re.kr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발언을 한 데 이어 다보스포럼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에 SOC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의 연해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주변국도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경제협력사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으로 ‘유라시아 철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에서 추진하는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2010년 10월을 마지

막으로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3년 4개월 만인 2014년 2월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최근 우리 사회는 북한과 인도적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한편,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외 무역을 다각화·다양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2012년 6·28 및 12·1 조치로 북한 사회에 인센티브제 도입, 이윤 중시의 기업 경영, 시장 가격 중시, 시장의 활성화와 같은 시장

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경제 회생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특구 및 인프라 사업 추진

북한 당국은 외국 자본을 통한 경제·관광 특구 및 교통 인프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외적인 경제 특구는 라선 경제무역지대(1991년 지정, 2010년 특수경제지대 및 직할시로 개편), 개성공업지구(2002년 지정), 금강산관광특구(2002년 지정), 신의주특별행정구(2002년 지정),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2010년 지정) 등 5곳이다. 그 중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는 답보 상태에 있으며, 황금평·

위화도 및 신의주 지구는 중국 등과 특구 개발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라선지구만이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자본에 의한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라선지구는 2010년 12월 북한과 중국 정부 간에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공동 개발 및 공동 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중국 훈춘과 라진항 간 50.3km 구간 도로의 확장 공사도 끝나 개통되었다. 훈춘과 북한 원정리 사이의 신두만강대교, 훈춘~라선 철도, 훈춘에서 라진까지 송전선로 설치 및 라선시에 변전소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진지구에는 상점과 식당, 호텔 등이 포함된 16개 동 규모의 대형 국제무역센터가 중국 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의 대북 투자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0%까지 중국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라진~함산 간 54km의 철도 보수 공사를 2013년 9월에 완료했으며, 2008년에 북한과 러시아는 각각 3 대 7 지분으로 '라손콘트란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라진-함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라진~함산 철도 현대화 작업, 라진항 현대화, 복합 물류사

업의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몽골도 라진항 임차를 희망하고 있는데 몽골은 석탄 등 지하자원을 라진항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기를 원하는 만큼 꾸준히 라진항 진출을 모색해 왔다.

북한의 경제특구, 즉 외국에 대한 개방 지역은 중앙 정부의 관할하에 주로 남한이나 중국의 접경 지역으로 제한되었지만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는 북한의 내륙 및 연해 지역 등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3년 5월에 지방급 경제특구 추진을 지원할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11월에는 13개 경제개발구를 발표했다. 경제개발구는 지방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는 중소 규모의 경제특구로 경제개발구별 용지 규모는 1.5~8km²(45만~240만평)이며, 총 44.3km²(약 1,340만평) 규모이다. 북한 기업과 외국 투자자 사이의 합영 기업 형태 또는 외국 투자자 단독으로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2013년 12월에 중국 도문시와 함경북도 온성경제개발구는 특구 조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 물량 60조원 규모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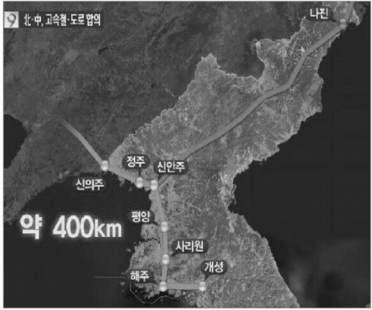
북한은 원산 지역에 종합 휴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산을

금융무역지구, 공원·체육·오락시설용지, 관광숙박시설용지, 체육촌지구 등으로 나눠 개발하고, 송도원해수욕장과 명사십리·갈마반도 등 해안은 여름 휴양지로, 마식령 일대는 최근 준공된 마식령스키장 등을 중심으로 겨울 종합 레저타운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칠보산과 백두산에 대한 관광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금강산 관광특구에 대한 관광사업이 재개되고 추가적인 투자를 추진하게 된다면 '금강산-원산-칠보산-백두산'을 연계하는 관광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북한의 최남단 지역인 황해남도 강령군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강령군 경제특구의 면적은 505km²로 금융 및 업무, 첨단 과학기술, 문화·관광, 최신 농업 및 에너지 기지, 국제 교통 물자 교류 등을 통해 국제적인 대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경제개발협회와 중국의 관군투자유한공사를 대표로 하는 국제투자집단 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의주~평양~개성 사이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건설에 관한 합의를 2013년 12월 8일에 체결했다. 철도는 시속 200km 이상 복선 선로로 건설하고, 도로는 왕복 8차선 시속 120km 이상으로, 완전

■ 이 슈 진 단



신의주~개성 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노선도.

밀폐식 국제 전용 철도로 건설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 사업은 건설 기간 5년,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 기간 30년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정식 계약서는 본 합의서를 기초로 향후 평양에서 작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신의주~정주~신안주~평양~사리원~해주~개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신의주, 해주(강령군), 개성 등 북한의 주요 경제특구뿐만 아니라 평양과 같은 북한 서부 지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향후에는 남한(TKR)과 중국철도(TCR), 그리고 라선과의 연결을 통한 시베리아철도(TCR)와의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 개발사업에는 부지 개발, 도로·철도·전력 등 각종 인프라 건설, 공장 건축과 같은 건설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라선, 신의주, 강령군 등 경제특구와 13개 경제개발구, 3개 관광특구, 신

의주~개성 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 물량은 개략적으로 약 6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 커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안과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개성공단의 인력 수급이 한계에 다다랐고 의류를 포함한 제조 분야 국내 중소기업들의 북한 진출 의지가 높기 때문에 라선경제무역지대, 황해남도 해주, 평안남도 남포 등에 진출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값싼 인건비를 찾아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전전하는 여러 중소기업에게 현재의 개성공단 확대와 함께 제2의 개성공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라선지구에 대한 진출은 한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의 확보와 향후 한반도 종단 철도(TKR : Trans Korea Railroad)와 대륙 철도(TSR, TCR, TMR 등)의 연결을 위한 사전 사업이 될 수 있다.

향후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경제의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한 간의 협력 사

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개연성이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 급감으로 북한의 무연탄, 철광석 등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의 외화 부족으로 원유뿐만 아니라 소비재 및 각 산업의 원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중국 이외의 교역 상대국을 신속히 확보하거나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한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신속한 교역 상대국의 확보 또는 경제적 지원의 대상으로서 남한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다.

향후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어 5·24 조치가 해제되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경제 및 관광 특구, 각종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외국 자본의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된다면 국제 사회는 한국의 협력자뿐만 아니라 경쟁자가 될 것이다. 향후 북한 내 각종 특구 및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북 개발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CERIK